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시각예술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시각예술 분야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2025년 1월 13일(월) 10:00~12:00
(2차) 2025년 2월 5일(수) 10:30~13:3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혜경, 김영동, 박수진, 이윤희, 이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청년예술가의 기획, 창작, 발표 지원 및 예술가 간 협업 활동을 촉진하여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전의 39세에서 34세 이하 예술가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며, 개인뿐 아니라 팀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신청자격을 최근 3년 이내의 작품 발표 이력으로 조정하고 팀의 경우도 구성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예술가의 예술계 진입과 안착을 유도하는 본 사업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하고자 한 바입니다.

2025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 시각예술 분야에는 총 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지원신청 결과 총 578건이 접수, 행정 결격을 제외한 567건을 대상으로 총 5인의 전담심의위원이 1, 2차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차 심의에서는 신청자의 기존 작품발표 실적과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역량만을 평가하여 101건을 2차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차 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신청 사업의 예술성과 작품 기대성(5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50%)을 평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결정은 1, 2차 심의 모두 사전 평가 이후 대면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39건(개인 33건, 팀 6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본 사업이 청년예술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작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실험과 작업 세계 안에서 다룰 주제 탐색 등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여성, 생태, 젠더, 객체 지향성 등 최근 동향의 주제를 다루는 신청자들이 많았는데, 자신의 작품세계와 주제의 관계성에 관련하여 고민하고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으로 차별화시킨 신청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팀 지원사업에서는 명확한 기획 의도에 의해 구성되고 구성원 모두 각각의 작가적 정체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신청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창의적인 협업과 작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팀 사업이 기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부 장르별로는 서양화나 설치, 영상의 경우 주제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면 한국화의 경우 전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매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규모는 개인은 5백만원에서 최대 20백만원, 팀은 20백만원에서 최대 40백만원으로 예산심의를 통해 항목별 예산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모든 청년예술가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각예술 분야는 많은 신청으로 박빙의 점수로 선정 여부가 나뉘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사업이 청년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